마음에도 계절이 있습니다.

지금의 시린 겨울도 결국은 봄을 부르기 위한 기다림입니다.

잔잔한 호수를 바라보았다.

요동치는 내 마음과 다른 그 모습이

나를 타이른다.

이해한다. 이해가 된다.

행복하게 살기에도 짧은 시간

흔들리더라도 평온하게 바라보아야지.

호수가 나를 바라본다.

웃는다.

▶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(063)430-8529
▶ 자살 ·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-0199

QR코드를 찰칵! 찍어주세요



나들e진안

마음건강검진